

문화광장



장수명
동화작가

누구십니까?

‘대통령은 오프라이스, 국민들은 방사능 밥상’
서귀포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현수막 문구이다.
지난 16일과 17일 방일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날 선 질타는 끊이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국민 방문이 12년 만이다 보니 국민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만 치부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가 석연치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이라며 국민들이 공

금해하는 사안에 대해서 굳게 입을 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 쪽 소식 통이라며 불리는 대통령 방일에 관한 내용들은 참으로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오죽하면 국치라는 표현을 쓸까 싶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한·일 양국 관계는 살얼음판을 밟는듯 해도 지나치지 않는 관계이다. 게다가 양국 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 산재한 현실을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신중해야 할 때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진정 우리나라를 지키는 국가원수가 맞는지, 도대체 누구인지 묻고 싶다.
강제징용 문제 등 산재해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중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다.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일본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올 여름부터 향후 30년 동안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핵물리학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하고 언론과 만나 학자적 양심을 걸고 한 평가는 한마디로 ‘영망진장’이라고 한다.
방사성 오염수엔 64개의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본 도쿄전력은 4년 3개월 동안 그중 7개 방사성 핵종에만 집중했다고 하고 오염수 저장 탱크 총 1066개 중 단 1개의 탱크도 64개의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적이 없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도쿄전력이 제공한 오염수 정보와 관련 지식이 매우 허술하고 부족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이에 무엇

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제주도정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오염수 방류 저지에 총력을 집중해야 한다.
해양 생태계는 미래세대의 생존에 관한 일이다. 기성세대 모두 한 마음이 돼 일본의 오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그들의 뜻대로 되지 못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그 무엇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출할 것이 아니라 일본이 장기 보관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고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하에, 전 지구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계 다른 나라와 함께 맨 앞줄에 서서 막아내야 한다.

사설

시대 변화 맞춰 합리적 건축고도 마련하라

건축물 고도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산 업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고도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고밀도 개발 필요성과 구도심 활성화 차원서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제주도의 화와 제주연구원이 28일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 양하고 복잡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 해소와 미래의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다. 그동안 건축물 고 도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도민사회의 핫 이슈였다. 실제로 노형동 준주거지역은 경관보 전 목적으로 고도가 35m로 제한 됐다. 반면 이곳과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드림타워는 169m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제주항 입구조에 초점이 맞춰진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고도규제는 개선돼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밀집 지역에서의 고밀도 개발 필요성과 구도심 활성화 차원서 고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제주도의 화와 제주연구원이 28일 ‘제주 미래를 위한 고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 양하고 복잡한 개발 수요 증가로 인한 난개발 해소와 미래의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다. 그동안 건축물 고 도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도민사회의 핫 이슈였다. 실제로 노형동 준주거지역은 경관보 전 목적으로 고도가 35m로 제한 됐다. 반면 이곳과 불과 100m

열린마당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송남혁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러한 건설 현장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하려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 내 선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설된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을 미리 숙지해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관리·감독 업무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소방계획서에 따른 현장 안전 관리를 실천 하자.
앞으로는 화재 없는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길 바란다.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인천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 화재 그리고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청북읍 냉동창고 화재 등 많은 화재 사건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공사장의 대표적인 화재 원인 중 하나는 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하는 불티에 의한 화재이다. 현장의 특성상 분진, 가연성가스·자재 등에 쉽게 노출돼 작은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뉴스-in

제주-중국 관광·문화 교류 재개 관심

오 지사 중국 방문 성과 주목
교량 안전점검 ‘유비무환’
○...제주와 중국 상하이를 잇는 직항노선 운항이 3년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8기 첫 중국 방문길에 나서며 제주-중국 간 관광·문화 교류 재개 여부에 관심.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 지사는 중국과의 경제·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6박 7일간 중국 산둥성을 찾은 바닷길과 하늘길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하이난성에서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협력을 모색할 계획.
특히 최근 동북아 지역 정세로 중국과의 관계가 끈질기른 상황에서, 오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이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

교량 안전점검 ‘유비무환’
○...최근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 내 제2·3종 교량 시설물의 정밀 및 정기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
이에 시는 상반기에 사업비 9000만원을 투입해 교량 52개소에 대해 정밀·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교량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측해 안전상 문제가 있는 손상 등의 구조적 결함 발견 시 확보한 예산으로 신속히 보수 보강을 실시한다는 방침.
시 관계자는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 안전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량 정밀 점검 및 보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언급.

왕벚나무 기원 논란 불식시켜야 한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주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왕벚나무의 기원과 우리나라 특산식물임을 밝히는 연구가 추진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왕벚나무의 기원과 자생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올해부터 3년간 추진키로 했다. 연구의 과제는 ‘왕벚나무의 분류학적 검토를 위한 현지조사 및 문헌·역사학적 연구’다.
이번 연구는 국립수목원이 왕벚나무의 식물주권을 포기했다는 지적(본보 2022년 4월 7일 1면 첫 보도)이 제기된 뒤에도 논란이 지속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국립수목원이 2020년 펴낸 국가표준식물목록(자생식물편)에 ‘왕벚나무’를 빼고 ‘제주왕벚나무’라는 이름을 넣고 ‘왕벚나무’는 재배식물목록으로 옮긴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국가기

관 왕벚나무를 제주왕벚나무로 개명하는 것은 왕벚나무가 자생식물임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연구에 왕벚나무 전문가와 산림·식물분류·유전체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연구자문단을 구성해 연구의 객관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게 산림청의 계획이다.
아무쪼록 확실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왕벚나무의 기원과 우리 특산식물임을 밝혀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2050년까지 전국의 공원구 공공시설은 물론 가로수용 등 제주왕벚나무를 심자는 운동인 ‘왕벚프로젝트 2050’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식물주권 확보와 더불어 왕벚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교회관(애농 팀장) 아버지 제주고공 성주(향년 92세)께서 서기 2023년 3월 26일 06시 57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23년 3월 28일(화요일)
▶ 발인일시: 2023년 3월 29일(수요일) 오전 6시
▶ 발인장소: 중앙병원장례식장 2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호국원
아 들 교회관 며느리 강인실
딸 고인수 사 위 최병학
인 옥 진 당 식
희 속 김 형 중
희 선 손 서 송 성 민
손 녀 고 지 혜 손 서 송 성 민
지 현
유 미
예 린
※ 연락처 : 교회관 010-4690-9582
교회속 010-5582-2390
교회선 010-9898-1391
강인실 010-3286-9582

향운철학관
향운거사 이방택
사주, 관상 2가지 방법을 종합해서 운명을 감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운명이 현재, 미래에 어떠한 운명인가를 알아서 살아가는 지혜가 중요합니다.
사회에 나가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성공할 것인지 대학은 문과를 가야할 것인지 이공계열을 가야할 것인지 미래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 중3, 고1, 2년생 환영합니다.
하루에 오전, 오후해서 2명만 전화 예약 받습니다. **복비 : 50,000원**
전화 010-7301-7737

토지임대
제주시 월성로4길 76-2 (해태동산/공항방면 우측)
대지 4,123㎡(1,247평)
건물 2동 / 2중 근린생활시설
현재 렌터카 차고지
임대료 상담후 결정
744-2002, 010-2113-2112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을 미국식품의약국인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묘지후손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를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만에 가능합니다.”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 전문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연구소
신소장 ☎010-7305-7819 제주특별

강정동 카페 및 펜션 토지 매각
1 강정 해안도로 접 607평 (카페 A급 토지)
2 강정동 주택지 373평
3 강정 해안도로 뒤 370평 (건축높이 17m가능)
4 서귀포 이마트 근접 180평 (비다조망 건축가능)
5 월평포구도로 근접 590평 (상가 및 펜션 건축가능)
6 호근동 일주도로 위법성 조망 180평 (주택 건축가능)
7 고근산 뒤 5,000평 조경 식재 (별장 건축가능)
※ 부동산중개사 아님
010-7328-1107, 010-6275-5200

택지, 상가 긴급매각
1) 성산포 500평 현재 70% 공사중 해안도로접
2) 송당리 1,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750,000원) 관광농원 임구, 송당리 마을, 2차선 접합
3) 종달리 6,000평 (분할 가능) 관리지역 (평당 1,600,000원) 우도와 일출봉사이 바닷가
4) 시흥리 5,000평 (분할 가능) 잡종지, 일주도로 접합
5) 성산포 12,000평(분할 가능) 해안도로 접합
010-4820-4823
(부동산중개사 아님)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차고지/주차장
市の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市 지원 90% *
2023년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중
* 자기차고지갯기사업 *
No.1시공업체
편리한생활건축설비
010-9908-9200
종합집수리/하차보수